

합병증 유무를 알기위한 검사

당뇨병환자는 혈당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망막증, 신장합병증, 대혈관합병증, 족부합병증 등 다양한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또 당뇨병이 생긴지 오래된 환자, 혈당수치가 불규칙한 환자 등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식이요법과 운동, 약물요법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합병증 예방의 지름길이다. 또한 혈당관리가 꾸준히 관리되고 있더라도 최소 1년의 한 번씩은 합병증 검사를 받아 자신의 질병 유무를 판단해야 더욱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당뇨병환자에게 흔히 생기는 합병증 유무를 판단하려면 무슨 검사를 해야 할까? 본 코너에서는 초보 당뇨병환자나 아직 합병증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합병증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합병증을 알아보는 검사

안저 검사

망막증의 진행속도를 알아내는 검사이다. 환자 자신이 시력저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 할지라도 망막표면의 이상을 빨리 알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1년에 1번은 안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뇨단백 검사

건강한 사람은 눈에 단백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당뇨병성 신증에서는 초기 징후로 뇨중에 단백질이 검출된다. 뇨단백 시험지로 측정하여 양성이 나오면 뇨단백을 주의해야 한다. 최근 더욱 미소한 뇨단백을 검사하는 측정법도 개발되어 조기에 신증을 예방할 수 있다.

아킬레스건 반사 검사

아킬레스건을 두들겨 반사가 오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약 반사가 오지 않으면 당뇨병에서 오는 신경장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진동각 측정 검사

신경장애가 진행되어 가면 진동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에 대하여 감각이 둔해진다.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이 검사이다.

신경 전도속도 측정 검사

사지에 전류를 흘려 신경 내에 전하는 속도에서 신경의 장애도를 판정한다. 정량적으로 측정되며 장애도가 수치로 정확하게 파악되므로 우수한 검사법이다.

심전도로서 심박변동 측정 검사

신경장애가 진행되면 심장 박동은 본래 있는 리듬이 소실되므로 변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합병증 증상별로 알아보는 검사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환자에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망막모세혈관에 이상이 와서 혈관이 새거나 막히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초기에는 자각증상이 없어 당뇨병성 망막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년에 한 번씩 눈검사(안저촬영검사)를 받는다.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면 안과의 진료가 필요하며 특별한 형광물질의 주사를 맞은 후 망막을 연속적으로 촬영하여 망막의 혈관상태를 관찰하는 '형광안저촬영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으로 인한 초기 신장 손상은 소변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신장에 이상이 오게 되면 신장에서 100% 재흡수 되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 나오게 되므로 단백뇨가 생기게 된다. 신장합병증이 진행되기 전 조기에 합병증 유무를 알아내기 위해 일 년에 한번씩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소변에 단백을 측정하는 미세단백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병성 신경합병증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은 당뇨병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 증상과 침범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감각기능, 운동기능 및 자율신경기능에 관한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인 진찰을 받아야 하며, 신경전도검사, 근전도 검사, 유발전위검사, 자율신경기능검사와 같은 생리학적인 검사를 필요에 따라 받아야 한다.

지방간, 담석, 노관결석

이것도 합병되기 쉽다.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지방간, 담석, 노관결석 외에 만성췌장염, 간암, 췌장암 등의 유무를 알 수 있다.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등의 지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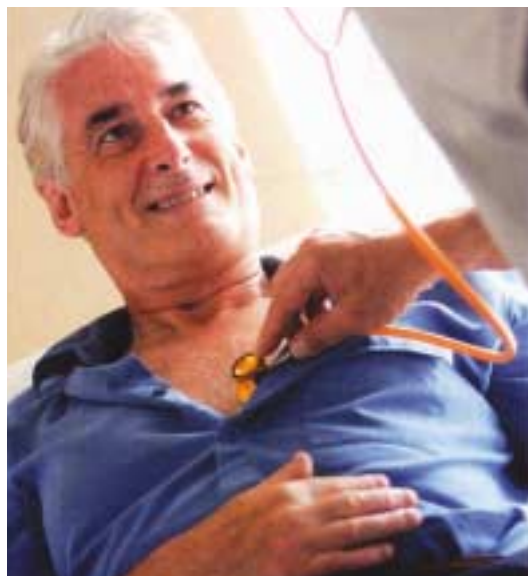
병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 동반되기 쉽고 이는 동맥경화증의 악화인자이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당뇨인의 사망원인의 40%는 심근경색증 때문이다. 특히 당뇨인의 심근경색증은 무통증성이기 때문에 증세가 없어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전도검사만으로는 심장의 합병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의 합병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는 보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는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동위원소 심근검사 등이 있다.

뇌졸중

당뇨인의 사망원인의 20%는 뇌졸중이다. 특히 당뇨병의 뇌졸중의 특성은 여러 부위가 동시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이 필요하다. 뇌혈관의 동맥경화증 정도를 알기 위한 검사로는 경동맥 초음파와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Brain MRA)검사가 있다. 



당뇨병환자의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는 필수적이다